

A.상황 (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)

제사장들, 온 공회 앞에 서다

30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
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
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

B.유대인 공회 앞에서의 재판 (사도행전 23장 1-10절 말씀)

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다(vs 대제사장 아나니아)

- 0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
여러분 형제들아
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
- 0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
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
- 03 바울이 이르되
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
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
- 0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
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
- 05 바울이 이르되
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
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

바울,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란을 이용하다

- 06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
공회에서 외쳐 이르되
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
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
- 0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
- 0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
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
- 09 크게 떠들새
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
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
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
- 10 큰 분쟁이 생기니

재판 종료: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다

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
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